



정덕용 문화재단이사장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0일 정덕용 한국문화재보 호재단 신임이사장의 예방을 받고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법어집 '영화인천' 출판회



꽃을 들어 사람과 하늘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제1회 청소년 보호대상 표창



장에서 열리는 제1회 청소년 보호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건전화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다.

인덕노인회관 1돌 행사



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총 5천여만원이 소요된 2층 건물(건평 36평)을 건립해 기부한 최 회장의 보시행은 사회에 이로운 환원하는 기업윤리가 어떠해야 할 지를 웅변으로 보여준 일.

김재경 기자

"기업도 실적고통 나눠야죠"

'아침을 여는 집' 건물기증 최용권 회장

"IMF사태는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실적자 구호센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들도 구조조정이 정리되고를 최소화하는 등 실적문제 해결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5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이 서울시 서소문공원에 문을 연 실적자 구호센터 '아침을 여는 집' 건물기증.

김재경 기자

"타자치며 불교공부 하세요"

불교용어 타자연습프로그램 개발 광철상씨



"일부 교회에서 타자연습프로그램에 성경구절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자극받아 불교교리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먼저 제작했습니다."

불교경전을 치며 타자연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키보드 학습 프로그램 '늘푸른 키보드학습 1.0'을 개발, 자신의 완화에 1천개를 법보시해 화제를 모은 광철상씨(45세·늘푸른 세미집 이사)는 개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광철상씨는 "사찰에서 이 프로그램 사용을 원할 경우 역사와 문화 등을 넣어 특별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말하고 "청소년을 위한 법보시용으로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정성운 기자

'개관 1주년 기념법회 및 경로 잔치'를 연다. 지역노인 3천여 명을 초청, 국악 및 풍물공연과 점심공양 등으로 효친사상을 고양시킬 예정이다.(02)385-8205

해군 신병 7백명에 수계



백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갖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철웅스님 초청 법회 열어



철웅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비구니 선방 '조인' 개원

고경 장수 신공사 주지는 10일 안간계 결제일을 맞아 비구니 선방 '조인(禪印)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8명의 비구니 수좌들이 정진하고 있다. 조인선원은 제방 수좌들의 입방을 기다리고 있다. (0656)353-0598

오봉사 복원불사 기공

선진 경기 연천 오봉사 주지는 20일 복원불사 기공법요식을 봉행했다.

원효성사 1381주 대례

태경 경북 경산 제석사 주지는 29일 원효성사 1381주기 대례를 봉행한다.

제12회 동국문화상 수상

故 정의홍씨(前 대전 대 국문과 교수·사진위)와 호명송씨(소설가)가 동국문화인회(회장 조상기)가 수여하는 제12회 동국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의 시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과 호씨의 소설 '유쾌하고 기지에 찬 사기사'. 시상식은 28일 오후 7시 동국대 문과대학 세미나실(A104).

교직원·학생 6백명 수계



이근우 청담종교장은 18일 청담종·고교 직원 및 재학생 6백명에게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불련동문 '대불' 창간



간했다. 이 달의 이슈, 회원 동정, 동문 찾기 등이 실린 이 소식지는 매월 발간된다.

불자예술인연합회 대법회



호원에서 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한다.

덕진스님 수행담 출판

최일성 울산신문협회장은 28일 오후 7시 울산 정토사에서 덕진스님(정토사 주지)의 포교수행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강지연 기자

"노인 교화·복지불사에 여생"

교화 한평생 정년맞은 대안화 대종사



지난 22일 대전 리베라호텔 백재출. 증생교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스승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후학들과 신교도들이 기로진원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1951년 진각종단에 입교 후 45년의 세월을 증생교화에 힘써며 청정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온 진각종 대안화대종사(72). "부처님의 가피와 선대 스승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재료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후학들과 신교도들이 이번번에도 못한 내 법문을 <회향의 죽비소리>라는 책으로 엮어내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로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안화대종사는 사회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불자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회향의 죽비소리>는 대안화대종사의 생애와 교화 일화, 법문 등 3편으로 구성돼 있다.

도필선 기자



도안사 경로잔치·효행상 시상

서울 도안사(주지 해자)는 15일 상계동 동막골 공원에서 제17회 경로잔치 및 효행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경로잔치에서는 도안사 신도회 회원들과 노원구 부녀회 회원들이 참석한 지역 노인 1천여명에게 점심공양 및 떡, 음료수 등을 대접하고 가수, 발레트, 코미디언의 공연도 펼쳐졌다. 또 효행상 시상식에서는 신현구(42), 강순분(40), 이순덕(40)씨가 각각 수상했다.

김정은 기자

청소년 육성공로 대통령상 종실스님

"자원봉사는 보살도 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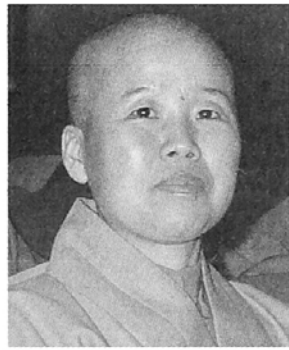
"청소년 교화에 일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려한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자원봉사는 바로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과 간접적인 인연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청소년 포교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청소년육성 유공자로 선정되어 20일 대통령상을 수상한 종실스님(대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5개, 그 가운데 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은 단 두 곳뿐이다. 96년 3월 청소년자원봉

사센터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2천년째 모든 시·군 단위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게 될 정부 정책에 대비해 불교계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며 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경제난국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년지대계인 청소년교육이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종실스님은 "청소년교화연합회가 학내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교법사단과 연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카웃 등이 서구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도·발우공양·참선·전통무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불자야아췌"라고 앞으로 전국적인 학생 동아리 활동의 장을 만들 뜻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승가대·불자연예인 친선축구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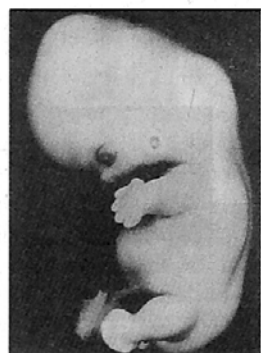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교 축구부 승통회와 불자연예인 축구팀은 17일 강남구 잠원동 신동초등학교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김홍국, 배철수, 김한국, 최백호 등이 참가한 불자연예인팀이 승통회와 접전을 벌인 끝에 7:6으로 승리했다.

이은자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주간모금 총액 5,819,890원 △개인모금 총액 3,032,980원(45명) △한끼줍기 278,000원(21명)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1,802,000원(32명) △나와우리 200,000원 △부산부부선재회 30,000원 △대불련부산지회 476,910원 (5월20일 현재 총 1,034,905,08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돕기운동부)

윤달에 구천을 떠도는 어린 영혼들을 천도합니다. 태아(낙태)영가 49재 천도법회 봉행



생명을 빼앗긴 태아(낙태)원혼은 부모에게 원한을 가집니다. 그 부모들은 태아(낙태)영가 천도재를 봉행하여 왕생극락을 축원하여 주고, 이들 부모는 윤달 예수재에 동참하시어 선업을 쌓아 이고득락 구경성불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 7·7 천도재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 태생 49일째 태아모습

- 임 재 : 5월 26일 10시 ■ 회 향 : 7월 13일(윤 5월 20일)
■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8 금강사 특설단
■ 안 내 : 02)993-3744 주지스님 상담 : 02)906-9001

생활불교 실천도량 교동안전 기도본찰 금강사 법주 변산 자우

「봉은」소년소녀 합창단원 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에서 밝고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할 소년소녀 합창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합창단명 :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
◎ 대 상 : 1.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
2. 노래에 소질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
◎ 모집기간 : 6월말까지
◎ 연습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시 30분
◎ 상임 지휘자 및 지도교수 : 정부기(중앙대 작곡과 교수)
◎ 접수 및 문의 : 봉은사 교무부(511-6070~4)

-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은 봉은사에 소속되며,
· 단원들의 음악 소질을 개발하고 합창 뿐만 아니라 작곡, 연주 등 음악 전반에 관한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 및 해외연주를 통하여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 국내 유일의 불교 소년소녀 합창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 총재 무 상 합 장